



# 맞벌이 부부의 재테크

외환은행 본점WM센터 PB팀장 | 김범석

최근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여성취업자의 수가 982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또한 경제활동 참가율도 50.2%에 이른다고 하니, 이제는 직장 여성보다 전업주부를 찾는게 더 어려울지도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격세지감(隔世之感)이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남녀 사이의 보이지 않던 차별이 많이 줄어든 결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가계의 살림살이가 그 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촉발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즉, 저성장 고물가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덮으면서, 실제 가계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종 생활 필수품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지만, 가계의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이며, 주택 구입을 위해 빌려 쓴 은행 대출금의 이자도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이중삼중의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에서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부채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유일한 대안일 수 밖에 없지만, 효과적인 자산운용, 즉 재테크를 한다면 늘어난 소비의 부담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도 있

기에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를 넘어선 지금 대부분이 맞벌이 가계인 점을 감안 여기서는 맞벌이 부부의 재테크 원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흔히들 결혼을 하고 맞벌이를 하면 소득원이 두 곳으로 늘어나 돈 모으기가 훨씬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물론 가장이 혼자 소득을 책임지는 외벌이 가계 보아야 많은 소득을 얻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에 요즘 젊은 세대 대부분이 맞벌이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득이 늘어났다고 대부분의 맞벌이 가계들이 생각한 만큼 손쉽게 목돈을 모을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필자 역시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주위의 대부분 맞벌이 가계의 고민과 마찬가지로 목돈 모으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소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 수입중 소비와 저축의 비율을 어떻게 조절하고 합리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목돈을 모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 서로가 다른 소득원을 가지고 있어 조금은 느슨한 소비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주위의 동료나 친인척들의 기대심리로 인해 과감한 절약을 시도하기도 쉽지 않은게 맞벌이 가계지만, 그래도 보다 효과적인 재테크를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생활수칙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 ■ 공동의 경제적 목표 설정

재테크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것이 재무목표를 구체화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각자가 소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득을 각자가 알아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럴 경우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이중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또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상품을 간과하여 빠뜨리기도 한다.

부부간에 상의하여 공동의 경제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나가야 목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줄일수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부부 금슬이라는 말이 있다.

부부간에 서로 신뢰하고, 지지하는 가정이어야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함께 이겨내고 공동의 경제적 목표달성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서로 합심하는 대신 각자의 스타일대로 금전을 관리하면 목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수많은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나는 아끼고 절약하는데, 상대방인 남편이나 아내가 흥청망청 개념 없이 소비를 하고 있다면, 과연 이런 가정에서 성공적인 재테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부가 동일한 경제적 목표를 가지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 이미 재테크의 성공 여부는 판가름 난다고 볼 수 있다.

■ 급여통장 관리는 한 사람에게 집중

최근 많은 부부들은 결혼 후에도,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급여 통장을 각자가 관리하는 독립채산제 생활 스타일을 선호하는 경우가 같다.

서로의 소비생활을 간섭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생각할수 있을진 모르나, 한 가정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형성을 위해서는 이것 만큼 나쁜 방법도 없다.

왜냐하면 각자의 소득이 있다보니 아무래도 소비활동의 통제가 쉽지 않고 상대방의 소득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여 한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나 기대 저축금액을 상대방에게 미루어 버리려는 경향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생활에 있어서도 본인의 취향대로 흘러버려 때로는 상대의 지출에 의문을 품기도 해 어느 순간에는 가정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통장을 합치고 한 사람이 공동의 가정경제 목표하에 주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간다면 부적절한 소비지출의 통제가 훨씬 쉬워질뿐만 아니라, 늘어가는 저축액을 보며 기쁨을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주거래 은행을 만들자

앞에서 말한것처럼 맞벌이 부부가 각자의 소득을 알아서 관리하게 되면, 거래하는 은행도 기존에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각각 이용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최근 금융기관은 거래하는 실적과 신용도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 예를 들면 예금과 대출 금리상의 우대나 각종 수수료 감면과 대여금고 이용등에 있어서 고객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부부 상호간의 거래은행을 하나로 통일하고, 가급적이면 부부 또는 가족 모두의 실적을 통합해 관리해 주는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뱅킹의 발달로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지리적 위치나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거래은행을 바꾸기 힘들었던 불편함은 사라졌다.

특히 중소기업 경영자나 자영업자는 한 금융기관과 계속 거래하여 신용도를 높이는 것이 향후에 사업상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 소득의 50% 저축 및 '선저축 후소비'의 생활화

맞벌이 부부이면서, 소득의 50% 이상을 저축하는 가정이 생각외로 많지 않다. 개념상으론 부부 두사람의 소득 중 한사람 몫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소득을 저축해 나간다면 소득의 1/2 이상 저축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게 보이나, 실제 생활에서는 무척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부부 각자가 소득을 관리하는 경우, 외벌이 가정보다 소비 통제가 어려워 불필요한 소비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각자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주위의 기대치로 인해 지출에 대한 거부감이 무디어지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한번 늘어난 지출을 줄이기는 매우 힘들다.

저축은 쓰고 남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운 후 저축하고 남은 돈에 맞춰 생활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 금액을 자유로이 조절할수 없기 때문에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소비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저축 계획은 다소 무리하다 싶게 설정하고 적립식 펀드와 같이 매월 일정금액을 반드시 불입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꾸준히 실천하여야 최소한의 목표를 달성할수 있다.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 소득의 50%를 저축한다는 것은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겠다.

#### ■ 맞벌이 부부 필수 금융상품과 절세

맞벌이 부부 재테크의 첫 걸음은 매월 소득 중 일정금액을 모아서 목돈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가입해야 하는 상품의 우선 순위가 있다.

무조건 절약을 미덕으로 저축하는 것만으로 목돈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은 안타깝게도 정답이 될 수 없다. 예금이자도 받으면서 세금도 줄이고 아니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상품이 있다면 무엇보다 앞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 ○ 장기주택마련저축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1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 세대원 포함) 소유자로서 세대주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7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과 아울러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 연금저축(보험)

노후자금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상품으로, 가입기간 동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연간 불입액 3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55세이후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보다는 낮지만 5.5%의 세금 부담을 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주식등에 일부분을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변액연금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 청약예금(부금)

일반 예금에 비해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내집 마련을 위한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을 위해선 반드시 가입을 하여 순위 요건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능하면 부부 각자 명의로 한 계좌씩 가입해 놓는 것이 좋으며, 가입금액에 따라 청약 가능 아파트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희망하는 평형을 결정한 후 해당금액을 가입하여야 한다.

### ○ 비과세 및 세금우대 상품 활용

일반 예금상품에도 가입자의 자격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전혀 없는 비과세 상품과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세금우대 상품이 있는데 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실질 금리면에서 유리하다.

먼저 비과세 상품은 만 60세(여자 5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에게 1인당 3천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며, 세금우대 상품은 만 20세 이상은 1인당 2천만원, 만 60세 이상은 6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상품에 대해 적용된다.

세율은 일반과세의 15.4%(주민세 포함) 대비 세금우대 상품은 9.5%가 적용된다.

또한 신용카드의 사용과 기부금 납부등에 있어서도 소득공제의 효과가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활용을 하여야 좀 더 많은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 (가정의 리스크 관리)

앞에서도 말한것처럼 개인의 재테크 활동에 있어, 소득이나 저축금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의 통제를 먼저 실천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러한 소비에 있어서도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것은 조절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상치 못한 재해나 가족의 질병이 발생하여 큰 금액이 들어간다면 단순히 재테크 문제를 넘어 가정에서의 대처가 쉽지만은 않다.

소득원이 줄어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비용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중의 고통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가정에 있어 최대의 리스크가 아닐까 싶다.

이런 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원래 보험이라는 상품이 높은 수익율로 원금의 빠른 증식을 목표로 하는것이 라기 보다는, 재해나 상해등의 장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담보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므로 비록 다른 금융상품 대비 이자율 면에서는 다소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가정의 최대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고,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상품이 누구나 알고 있는 종신보험인데,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혜택이 같지만 특정 기간이나 나이까지만 보장을 해주는 정기보험을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 부부 중 한 사람만이라도, 경제 전문가가 되자.

부부 모두가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상의하여 투자를 한다면 무엇보다 좋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한 사람만이라도 가정의 재정관리와 앞으로의 목돈 투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직장이 경제 관련 계통이거나 또는 주변에서 손쉽게 경제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서 하는게 효과적일 것이다.

가정 경제에서 재테크 또는 목돈 만들기 과정은 결코 짧은 단기간에 승부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전 모드로 준비하여야 하는데 그러기엔 경제환경의 변수가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고, 앞으로도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언제나 환경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따른 적절한 좌표 수정을 해나가야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지난 몇 년간 강남권의 주택가격이 큰 폭의 상승을 하였을 때, 재빨리 부동산 상승세를 감지하고 은행 대출금을



부담하면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과 그냥 금액이 부족하다고 계속적으로 저축만을 고집한 사람의 차이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매일 경제신문 구독을 생활화하고 작은 단신 하나라도 꼼꼼하게 잘 읽어두어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재테크 사이트 한, 두개는 즐겨찾기에 등록해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는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만 효과적인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

